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말복 행사



8월 14일 말복을 맞아 빙수 나누기를 통해 올 마지막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다.

▶ 추석 행사



9월 28일 추석을 맞이하여 환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선물을 나누어 드렸다. 다 함께 명절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 주간 캠페인



10월 26일 10월 둘째 주 토요일 '세계 호스피스의 날'을 맞이하여 본원 1층 로비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 호스피스 종사자 소진프로그램



11월 17일 호스피스 팀원의 소진관리를 위하여 레몬청 담그기를 하였다. 지치고 힘든 마음을 서로 위로하며 다독일 수 있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통증 캠페인 '암성 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



5월 27일(1차), 7월 8일~15일(2차)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입원 환자와 전 교직원

을 대상으로 통증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1차는 입원 환자와 가족 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 바로 알기'와 '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 리플릿과 소정의 기념품을 배부하고 통증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환자, 가족의 암성 통증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2차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원내 게시판에 암성 통증 관련 영상물과 리플릿을 게시하고 사례를 공모한 후 마지막 날 2,500부의 리플릿과 기념품 배부, 사례공모 당첨 직원에게는 특별 사은품을 전달하며 통증 캠페인 홍보를 마쳤다.

▶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 '술술바람' 축성식



2020년 5월 소아청소년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

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아암 병동 경력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원목자로 구성된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이 결성되었다. 소아완화의료팀은 8월에 행정 사무실을 개소하고 '술술바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알리며 9월 14일 축성식을 했다. 중증질환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와 완화의료를 함께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지막 시기에는 호스피스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 소진 프로그램 '감정 비우기와 채우기'



9월 14일~18일, 10월 16일 코로나19로 소

진프로그램 '감정 비우기와 채우기'를 원내에서 진행하였다. '감정 비우기'는 감정 쓰레기통에 직원들이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자유롭게 적어 비울 수 있도록 하였다. '몸과 마음 채우기'는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쿠폰 증정 이벤트를 하였다.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은 2주 동안 소진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고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한가위

9월 28일 코로나19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가족들은 특별한 한가위를 보냈다. 환자 가족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원을 적어 병동에 있는 감나무에 걸어 놓았지요~ 저희 모두 방역 지침을 지켜가며 나눔을 하였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인 날

9월 28일~10월 7일 세계 제8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 행사는 병원 교직원 대상으로 게시관(병원 온라인)을 활용하여 OX퀴즈를 진행하였고, 병원 출입구에 있는 스크린에 ppt를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초복/말복 환자 및 가족 식사



7월 16일, 8월 14일 코로나 가족이나 친지의 병문안도 힘든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의 지친 마음을 돌봐주기 위해 따뜻한 식사와 아이스크림, 시원한 과일을 제공하였다. 환자와 가족은 식사하면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답답한 마스크도 벗어 던지고 생활하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 행복한 동행 - 생신파티



7월 3일, 10월 22일 환자 두 분의 마지막 생일, 가족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 행복한 생일파티는

될 수 없지만, 환자를 위해 마지막 생일을 챙겨주고 싶다는 가족의 마음을 받아 신선한 과일과 맛있는 케이크를 준비하였다. 환자가 좋아하는 가족 1명을 초대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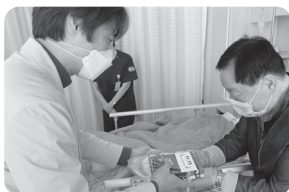
▶ 호스피스의 날



10월 20일~23일 호스피스의 날을 맞이하여 호스피스 병동에는 어떤 환자가 입원 대상자이고, 어떤 시기에 이동해야 하는지 교직원과 내원객(온라인)을 대상으로 OX 퀴즈를 진행하였다.

호스피스병동은 임종기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암 치료가 끝난 후 통증, 호흡곤란, 복수 등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다가 임종기가 오면 환자와 가족을 위해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정리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는 시간이었다. 또한 내원객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1대1로 설명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 함께 나란히 데이



11월 11일 환자, 가족, 호스피스팀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나란히 간다는 의미로 환자와 가족을 위해 과자, 가래떡, 식사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 단비가 내리듯 잠깐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보호자 한 끼 식사 제공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하는 가족들의 소진을 완화하고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따뜻한 한 끼 식사(도시락)를 제공하고 있다.

▶ 보호자 지지프로그램



보호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간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예방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비대면 사별가족 상담

사별 후 슬픔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비대면 사별가족 상담을 진행하였다. 자체적으로 사별 kit를 제작하여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전화를 활용하

여 지속적인 사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소진 프로그램



7월 16일~8월 11일 (4회)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위축된 마음을 슬기롭게 회복하기 위해 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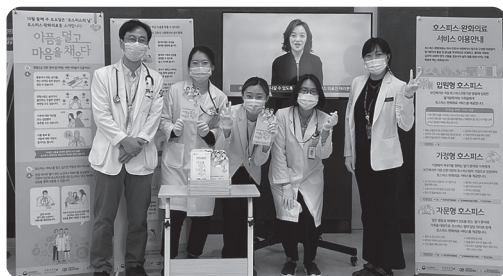
원에 수업을 진행하였다.

▶ 우리들의 특별한 여행



9월 26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가족여행을 지원하였다. 참여한 환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 순간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 행사



10월 19일~23일 코로나19로 행사 진행이 어려워 시청각 자료를 대신 활용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 행사를 진행하였다.

▶ 천일 후 애(愛)

천일(100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도착하는 편지로 환자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고 사별 후 남겨진 가족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북산성모병원

▶ 환자 혼배식



8월 16일 여러 사정으로 부부만의 사랑을 다짐하며 살아 온 20여 년의 결혼생활. 여명을 앞두고 하는

님 앞에 온전한 부부로 서기 위한 혼배식을 거행, 사랑과 감사, 회한이 가득한 눈물의 결혼식, 아들과 같이 가족의 영원함을 축복하는 시간을 함께하였다.

▶ 추석 이벤트



9월 29일 병상 생활 중에도 추석의 넉넉함과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 내 손으로 송편도 빚고, 환자와 가족, 팀원들이 투호, 고리 던지기를 하면서 모처럼 신체의 활력과 웃음, 추석 음식과 선물을 나누면서 풍요로운 한가위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와 가족, 팀원들이 투호, 고리 던지기를 하면서 모처럼 신체의 활력과 웃음, 추석 음식과 선물을 나누면서 풍요로운 한가위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 완화의료주간 호스피스 날 기념 캠페인



10월 22일 “호스피스 제대로 알기” 아직도 일반화되지 않은 인식으로 인해 너무 늦게 호스피스를 찾는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자리를 마련,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정도를 재고하는 장이 되었다.

▶ 2020년 자원봉사자 연말 총회 및 나눔

12월 21일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전처럼 어울리는 아가페는 뒤로 하지만 그동안 헌신하신 봉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사회복지협

회 골드볼런티어상은 김영희님,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봉사자상은 선정님님, 본원 호스피스봉사자로 10년의 수고를 하신 이영숙, 조순화, 허정미님에게 감사패, 그 외 사회복지협의회가 제공하는 그린, 실버, 골드 배지를 다수의 봉사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사랑의 거리 두기 속에서 1년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내일은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성가롤로병원

▶ 사별가족 아유회



7월 1일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다 사별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과 백운산 휴양림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했다. 비 온 뒤에 깨끗함과 상큼한 숲을 거닐 수 있어서 감사했고 산책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정성과 영양 만점의 식사와 간식, 후식, 레크레이션을 통해 자기소개를 하고 몸짓을 통해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일상의 활력소가 된 느낌이었다.

▶ 2020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 알기 캠페인



10월 22일 본원 현관 1층 로비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고객들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 낮 호스피스



지속되는 코로나 19와 투병 생활에 지쳐있는 환자와 가족을 센터에 모셔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센터 프락을 거닐며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 사별가족 프로그램 '뜨락 4기'



10월 24일~11월 28일 매주 토요일 6회에 걸쳐 센터에서 사별가족 모임 '뜨락 4기'를 진행하였다. 추모 미사와 음악, 미술 테라피, 피규어 테라피, 오감 힐링프로그램, 고인과의 추억 나누기 등을 통하여 사별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와 지지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성모병원

▶ 통증 캠페인



6월 25일 병원 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통증 캠페인이 있었다.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호스피스 팸플릿과 홍보물(손 소독제, 여행용 티슈)을 나누어 주었다. 통증에 대한 진실과 오

해를 OX 퀴즈로 직원과 외래 고객 150명에게 풀어보도록 하며 다양한 호스피스 상담과 통증 관리에 대한 인식을 고양 시켰다.

▶ 소진 프로그램



8월 24일, 10월 29일 팀원 12명이 나 바위 성당을 9명이 천호성지를 다녀왔다. 천호성지의 순교성인묘역, 부활 성당, 박물관, 납골당을 순례하면서 올해 호스피스병동에서 임종하신 황○○(엘리사벳), 서○○(실비아)님도 참배하였다.

▶ 사별 위로 편지 & 앨범 제작

9월 1일 사별가족 모임을 할 수가 없는 관계로 43분의 가족에게 위로의 편지를 띄워 드렸다. 또한 2016년 9월 22일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시작한 이래 2019년까지 임종한 환자들의 상징인 부활 나비를 트리에서 떼어 사진을 찍어 앨범을 만들어 찾아오시는 사별가족에게 앨범으로 보여드렸다.

▶ 공로상 표창

9월 2일 김보금(글라라)님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이·미용, 목욕 봉사를 한 공적으로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공로상을 받았다. 시상식을 할 수 없어 표창장과 부상을 우편으로 받아 팀 회의 시간에 축하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캠페인



10월 5일~8일 전북대학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와 함께하는 캠페인을 코로나19로 인해 7개 기관별로 하였다. 병원 1층 로비에서 600명이 참여하였고, 호스피스완화의료 홍보 팸플릿과 스토리툰 만화를 전시하고 홍보 물품(칫솔, 장바구니)을 나누어 주며 소개하였다.

▶ 병자성사, 세례, 혼배예식



10월 5일 이○○(마리안나)님께서 병자성사를 받으셨다. 손자이신 김용호(아브라함) 신부님이 성사를 주셨다. 11월 20일 이○○(안나)님에게 특별한 혼배예식이 있었다. 조당상태로 육십 평생 사시다 호스피스병동에 오셔서 병자성사를 받고, 남편이 부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펠릭스로 세례성사 받고 그 자리에서 혼배예식이 이루어지는 경사가 있었다. 평생 죄책감으로 지내며 풀지 못했던 한을 푸시고 3일 만에 하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셨다.

천주의 성요한병원

▶ 소진 예방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인해 집단 프로그램 아닌 개인 또는 소규모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방역 관리에 철저하여 개별로 소진 예방 활동 및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그간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과일 도시락 행사



9월 9일 코로나19로 지친 손님과 가족들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새콤, 달콤한 3가지 과일을 담은 과일

도시락을 제공하였다. 서로의 정과 미소를 나누며 기분 전환의 시간이 되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 알기 캠페인



11월 19일 2020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캠페인을 본원 1층 로비에서 실시하였다.

입원 중인 암 환자 및 보호자와 외래진료 대기 중인 일반손님을 대상으로 리플렛 제공, ox퀴즈, 스토리 툰 게시 등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 활동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였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제3회 이사회

7월 9일 코로나19로 서면 회의로 제20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1박 2일 피정과 우수봉사자상 시상 건(각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진 심사 후 기관으로 표창장 발송하여 전달), 2020년도 하반기 전문가 세미나 취소 건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았다.

▶ 제20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9월 2일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봉사자와 함께 하는 1박 2일 피정은 2021년으로 연기하고, 우수봉사자 표창만 하였다. 표창장은 각 기관으로 우편 발송하여 각 기관에서 수상자에게 축하와 함께 전달하였고, 부상은 수상자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우수봉사자상 수상자 명단

연도	수상자	수상자명
2020-1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김덕임
2020-2	부산성모병원	선정님
2020-3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인빈
2020-4	대구대교구 가톨릭 가정호스피스	장금희
2020-5	대구파티마병원	김용득
2020-6	익산성모병원	김보금